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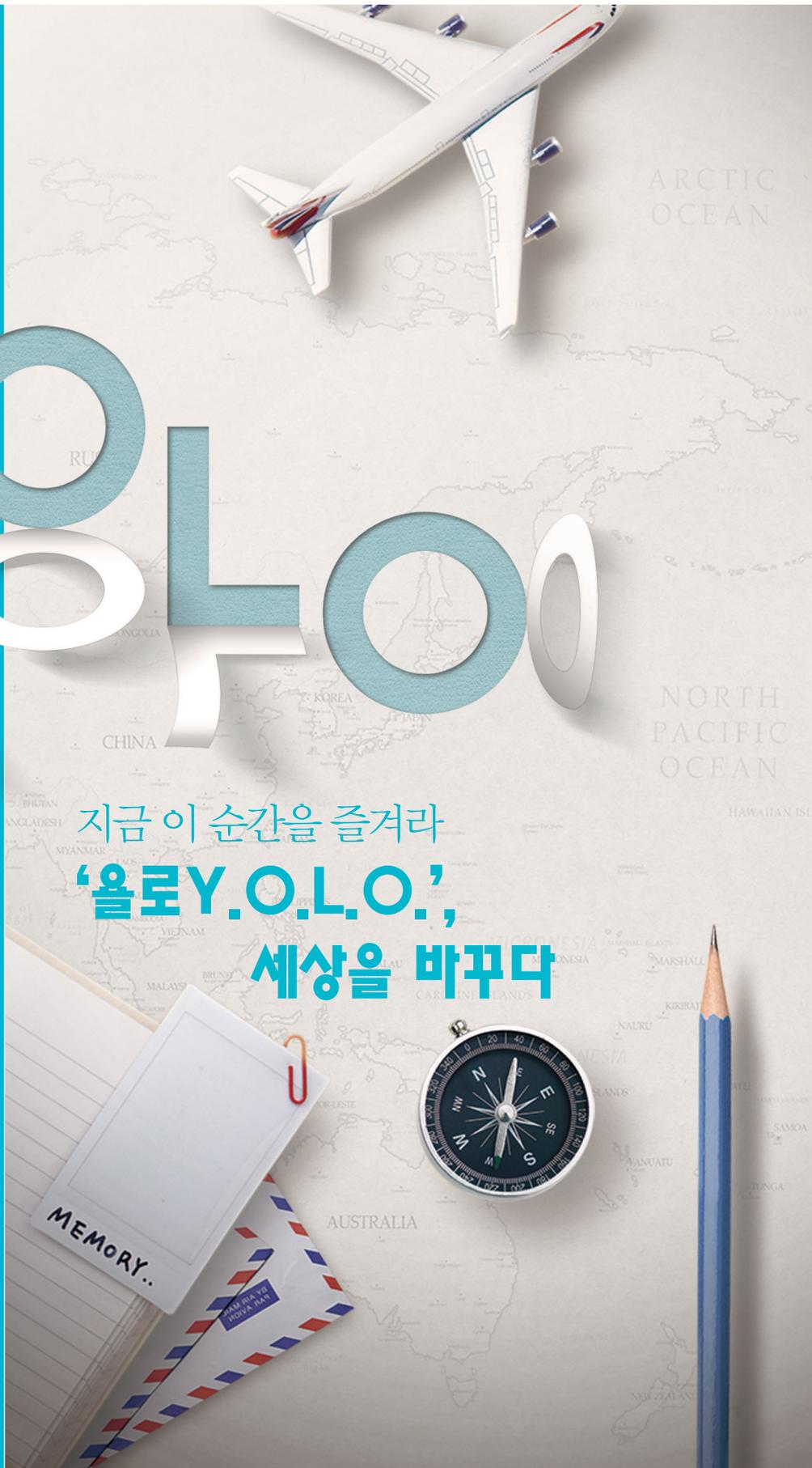
문화로
읽는
사회

Y.O.I.O.

글 김일균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올로Y.O.I.O.’,
세상을 바꾸다

‘오늘의 행복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올로는 행복한 오늘을 즐기고 자신을 위해 투자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새로운 가치관이다. 돈이 없어 에너지바로 점심을 떼워도 한 잔의 아메리카노는 마셔야 하는 올로족들을 만나보자.



올로족, 행복을 삽니다

‘올로(Y.O.L.O)’는 ‘당신은 단 한 번 산다(You Only Live Once)’의 머리글자를 딴 단어다. 언뜻 보면 종교 화두나 자기계발서의 문구처럼 보이는 이 말은 영미권의 관용구로 ‘현재를 즐기면서 살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캐나다 출신 가수 드레이크가 ‘The Motto’라는 곡에서 즐겨 불렀고 유행어가 됐다. 이후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이 ‘오바마 케어’ 홍보 영상에 직접 등장해서 “Yolo, man”이라고 언급하며 전방위적으로 확산됐다. 최근에는 배낭여행객들이 ‘헬로(Hello)’ 대신 ‘올로(Yolo)’를 인사말로 주고받는 등 활용도가 넓어지고 있다.

올로의 가치관은 미래를 위해 참고 저축하는 대신 즐거운 현재를 위해 다양한 경험을 소비하는데 초

점이 맞춰져 있다. 올로족(Yolo族)은 타인을 위해 희생하거나 힘든 일 하는 것을 가급적 줄이고 스스로를 행복하게 하는 일에 아낌없이 지갑을 연다.

“늦어서 잘 살기 위해 오늘의 아메리카노를 왜 참아야 하느냐”는 가수 요조의 발언은 이들의 소비 지향적 사고방식을 대변하는 말로 자주 언급된다.

이런 사고방식은 1980년대에 등장했던 여피족(Yuppie族)과 흡사한 부분이 있다. 젊고 도시에 사는 고소득 전문직을 뜻하는 여피족은 패션과 레저 등 인생을 즐기는데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이 특징이다. 양질의 교육을 받으며 자라서 안정된 생활 여건을 갖추고 소비지향적이며 자유분방한 삶을 지향했던 세대다.

반면 올로족들은 삶이 여유롭거나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황이어서 소비를 하는 것이 아니다. 전세금을

66

올로족은 타인을 위해 희생하거나 힘든 일을 피하고 스스로를 행복하게 하는 일에 아낌없이 지갑을 연다.

99





빠서 세계 여행을 떠나거나 내가 사는 월세방을 인테리어하는 등 일시적이라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 아낌없이 지갑을 연다. 또 이런 소비를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자로 인식해 충동구매와 구분한다. 이 때문에 자신을 위한 투자라는 개념에 익숙한 밀레니얼 세대들이 주로 율로족을 표방하는 경우가 많다.

나를 위한 소비, 밀레니얼 세대 '관통'

국내에서 율로가 유행하기 시작한 것은 불황이 장기화되고 물가 상승률은 높아지면서 저축의 의미가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980년부터 2000년 초반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으며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장기적인 계획보다는 개인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선택에 집중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평균소득이 낮아지고 대학 학자금 부담도 커 경제적인 자립이 힘들어진 데다가, 취업난과 일자리 질의 저하 등을 겪으면서 결혼도 미루고 내 집 마련에도 적극적이지 않다. 국내에서는 IMF사태로 불리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80년대생들에게 이런 경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중국에서도 최근 월광족(月光族)이라는 단어가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다. 여기서 광(光)은 '다 써버리다'의 의미로 사용되며 매월 버는 돈을 모두 써버리는 중국의 새로운 소비 계층을 의미한다. 이들의 생활방식은 수입의 정도와 상관없이 나타나는데 많이 버는 사람도 향락적인 생활을 하며 미래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중국은 브랜드 선호도가 높고 소비력이 높아 명품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데 월광족은 그 중심에 서있다.

롯데 높던 유럽의 명품 브랜드들이 속속 중국 진출과 온라인 배달 서비스를 실시하는 이유도

온라인 구매에 익숙한 월광족의 구매 성향에 따라 유통 방식을 변화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과 율로족은 베이비붐 세대 부모 밑에서 자란 밀레니얼 세대라는 공통분모를 가진다. 또한 부모 세대처럼 고된 삶을 반복하고 싶지 않다면서 결혼도 출산도 선택이라고 인식하는 점도 이들을 관통하는 가치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의 행복, 미래를 바꾸다

이처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보다 확실한 현재를 즐기는 것에 가치를 두는 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면서 율로족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으로는 이들이 취업, 결혼, 가정 생활 등을 도외시하면서 사회 재생산 기능의 토대를 위협한다는 말도 있지만, 이런 논리는 우리

사회가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희생을 강요하는 모양이 될 수도 있다. 이들의 현실에 맞춰 사회적 가치관도 변화하는 추세다. 예전처럼 열심히 일해서 높은 수입을 올리기보다는 지치지 않고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과 생활의 밸런스를 맞추는 워라밸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하는 등 율로의 가치관이 현실적으로 재정립되는 추세다. '1박 2일'과 '삼시세끼' 등으로 유명한 나영석 PD는 자신의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위한 키워드로 '무위도식(無爲徒食)'을 내세웠다. '하는 일 없이 놀고 먹는다'는 뜻으로 게으르거나 능력이 없는 사람을 나타내는 부정적인 용어지만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이 꿈꾸는 휴식과 맞아맞아있는 말이기도 하다. 나아가 현재를 즐기는 율로의 가치관과 맞아맞아있기도 하다. 율로가 미래를 관통하는 가치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66
확실한 현재를
즐기는 것에 가치를
두는 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면서
율로족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99

